

## Press Release

### 이베코코리아, 고객 경험 향상 위해 김해 서비스센터 새단장 오픈

- 서비스센터 부지 150 평 확장해 접객동 신축 및 넉넉한 주차·이동 공간 확보
- 쾌적하고 편안한 고객 대기실 마련 및 정비 효율 개선으로 고객 경험 향상

[2024 년 12 월 26 일, 광주]

이탈리아 상용차 전문 브랜드 이베코코리아(지사장 최정식)가 김해 서비스센터의 재정비를 완료하고 고객을 맞이한다.

이번 재정비는 이베코코리아의 서비스 품질과 고객 만족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김해 서비스센터의 부지를 확장해 접객동을 신축하고 시설을 재정비함으로써 경남지역 고객들에게 보다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해 서비스센터는 중부내륙고속도로와 근접하고 남해고속도로 진례 IC 진출입로 바로 옆에 위치해 이동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지점에 위치해 있다. 또한 상용차 수요가 많은 부산신항에 인접해 있어, 이베코 고객을 위한 핵심 서비스 거점으로서의 역할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베코코리아는 최근 경남지역의 수요 증가에 발빠르게 대응하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위해 약 500m<sup>2</sup>(150 평)를 확장해 총 3,200 m<sup>2</sup>(950 평)에 달하는 부지를 확보했다. 워크베이 6 개가 설치된 정비 공간은 장비와 시설 관리 체계를 재정비해 공간 활용도와 효율을 높였다. 이곳에서는 프레임 교정, 도장, 판금 시설 등을 갖춰 경정비는 물론 중정비까지 가능하다. 무역항에 가까워 트레일러 보유 고객이 많은 만큼 차량의 주차와 출차, 정비 시 헤드와 새시의 분리가 용이하도록 넉넉한 차량 이동 공간도 확보했다.

새롭게 생긴 접객동은 고객 경험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최신 시설로 단장해 쾌적하고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고객 대기실에는 점검 및 수리 시간동안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1 인용 소파를 배치하고 각종 다과와

음료를 마련했다. 접수처에서는 전문 상담사가 제품 및 서비스 혜택뿐 아니라 낮은 총보유비용(Total Cost of Ownership; TCO)과 최적의 운행조건 유지를 위한 이베코 만의 깊이 있는 노하우를 제공한다.

이베코코리아 최정식 지사장은 “김해 서비스센터는 체계적인 설비 관리와 전문 인력 확대를 통해 이베코의 높은 서비스 품질을 알리는 첨병 역할을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베코코리아는 서비스 인프라 확장과 개선 노력을 이어감으로써 고객 경험과 고객 만족을 높여 국내에서의 브랜드 입지를 강화해 나가겠다” 고 말했다.

이베코코리아는 올해 서비스센터 1 곳과 영업지점 2 곳을 개소하고 7 월 순천 서비스센터와 12 월 김해 서비스센터 개편을 완료했다. 2024 년 12 월 기준, 이베코코리아는 전국 10 개 영업지점 및 17 개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

#### 이베코그룹 (IVECO GROUP)

이베코그룹은 신뢰도 높고 지능적인 운송 솔루션을 통해 고객의 효율적인 비즈니스 운영을 지원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미래 운송산업의 변화를 이끌고 있는 글로벌 상용차 전문기업이다. 전 세계 20 개의 생산기지와 31 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산하 8 개 브랜드를 통해 상용차(IVECO), 파워트레인(FPT Industrial), 프리미엄 버스(HEULIEZ, IVECO BUS), 방산 및 특수차량(IDV 및 ASTRA)의 생산과 판매, 서비스부터 금융 서비스(IVECO CAPITAL)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베코(IVECO)는 Industrial Vehicle Corporation 으로 상징되는 중/소형 및 대형 트럭 라인업을 제공하는 이베코그룹의 대표 브랜드다.

이베코그룹의 한국 지사인 이베코그룹코리아 유한회사는 2014 년 설립되어, S-WAY 트랙터, X-WAY 대형카고, T-WAY 덤프트럭, 중형트럭 유로카고를 비롯해 3.5 톤 카고 및 대형밴 데일리 등 다양한 제품군을 국내 시장에 제공하고 있다. 2024 년 현재 전국 10 개 영업지점과 17 개 서비스센터를 보유하고 있다.

이베코는 고객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자 풀라인 상용차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포부를 바탕으로 운송 산업의 변화를 선도하는 브랜드가 되고자 하는 비전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자료문의]

#### **이베코그룹코리아 유한회사**

홍단비 과장 (010-7212-0588 / [danbee.hong@ivecogroup.com](mailto:danbee.hong@ivecogroup.com))

#### **드밀커뮤니케이션**

정이나 차장 (010-6302-7793 / [yeena@demillpr.com](mailto:yeena@demillpr.com) / [iveco@demillpr.com](mailto:iveco@demillpr.com))

홍석준 대리 (010-5045-3233 / [seokjune@demillpr.com](mailto:seokjune@demillpr.com) / [iveco@demillpr.com](mailto:iveco@demillpr.com))